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31호 2004년 8월 20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30~32 / FAX.042-472-3264

신 산학연협력 선포식 개최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산학연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 신 산학연협력’ 선포식이 20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에서 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중소기업청장과 고성철 (사) 산학연전국협의회 회장 (한남대 교수)를 비롯한 산학연전국협의회 소속 대학교수, 연구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선포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산학연 협력은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기술혁신의 성공여부가 여기에 달려있으며, 정부

가 앞장서서 산학연 협력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미 마련된 중소기업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또박 또박 챙겨나가고, ‘이만하면 중소기업 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홍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난관을 극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부단한 기술혁신 뿐이며 신 산학연 협력은 21세기 가장 효율적인 국가 기술혁신 전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청은 홍보영상물을 통해 정부의 신 산학연협

력 추진배경과 이를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창조 비전’을 설명하고, 그 동안의 산학연 협력 우수사례도 소개했다.

‘중소기업 신 산학연협력’은 기존 산학협력 패러다임이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개별 정책위주에서 정책 네트워크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산학연협력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선포식을 통해 현장에서 이를 직접 실천하는 전국 이공계 교수와 연구원들이 지역혁신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2)

1 교수 1 이노비즈 전담 지원체제 구축



김성진 중기청장이 어윤대 고려대 총장 및 유완영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8일 고려대학교 총장실에서 고려대학교 및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 : INNO-BIZ)을 육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수와 이노비즈간 1대 1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려대는 이노비즈에게 필요한 기술정보를 분석·공급하고, 보유기술 이전 및 기업간 기술이전 창구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이공계 및 상경계 교수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기술 및 경영 지

원체제를 확립하여 산학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성공률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에서는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번 협약을 지방의 12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2001년부터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이노비즈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으며, 현재는 2681개인 이노비즈를 2008년까지 1만개까지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49)

한·일 청소년, 사업 파트너 해볼까 !

- 한·일 청소년 경제캠프 개최 -

중소기업청은 오는 18일부터 4박 5일간 서울 잠실올림픽파크텔에서 한국과 일본 고교생 50명씩 모두 100명이 참가해 창업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전 경영과정을 실습해 보는 ‘한·일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경제캠프에 참석하는 학생들은 팀별로 사전 준비한 아이템을 교환하여 사업성과 참신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명동시장 및 남대문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등 경영과정 전반을 실습하게 된다.

또한 수립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아이템 경진대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경제캠프는 한·일 청소년에게 양국의 문화와 경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살아있는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19일 열린 개회식에는 중소기업청장, 주한일본대사, 한일경제협회장, 일한경제협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02-509-7033)

태풍 피해 중소기업 복구 지원

중소기업청은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설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방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자금은 재해 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피해금액 한도내에서 10억 원까지 년리 5.9%(1년거치 2년 분할상환)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분부를 통해 지원되며, 재해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년리 5.9%(1년거치 4년 분할상환)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중기청은 재해복구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후 7일 이내에 대출될 수 있도록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시 면책, 감사제외 등을 통해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활한 시설복구를 위해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진공, 정보화지원단, 경영기술지원단 등의 기술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피해신고와 시설복구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각 지방중기청에 상담하면 된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평가과
(02-503-1796)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과세이연 혜택 제공

-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제정·고시 -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받는 '신주-구주 교환방식'에 의해 양도차익을 얻은 주주에 대해 차익실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규정인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을 제정·고시해 시행한다.

이 요령에는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한 다른 기업의 주요 주주가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기청에 신청하면 그 주식교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자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주식교환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주주는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계약서', '교환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포함된 주식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 등의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387)

7월중 제조업 신설법인 증가

-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감소 -

7월중 제조업의 창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창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7월중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7월중 신설법인수는 4257개를 기록하여 지난달 4330에 비해 1.7%, 지난해 같은 기간의 4264에 비해 0.2%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1000개로 지난달 982개에 비해 1.8% 증가하여 지난 5월 837개를 저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는 지난달에 비해 음식료품(37.3%),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15.9%), 기계 및 금속업(3.4%) 등은 증가했으나, 고무 및 화학제품(-15.2%), 자동차 및 운송장비(-9.8%)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2683개로 지난달 2724개에 비해 1.5%,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수는 520개로 지난달 572개에 비해 9.1%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감소한 가운데, 부산, 광주, 울산, 전북은 증가했다.

한편 7월중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의 비율은 지난달(18.7)보다 상승한 20.3을 기록했으며, 이는 신설법인수의 감소폭보다 부도법인수의 감소폭이 더 큰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중소기업정책국
정책평가과
(02-503-7932)